

# 소상공인·서민 지원 '포용금융센터' 문 열어

광주은행, 창립 51주년 총장로 5가 옛 중부지점 자리에 오픈  
송중욱 행장 "지역민의 포용적 파트너로서 100년 은행 도약"  
윤석현 금감원장,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소외계층 지원 당부

원스톱 금융종합상담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기능을 할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가 20일 개점했다.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이날 오후 창립 51주년을 맞아 광주시 동구 총장로5가 옛 광주은행 중부지점 자리에서 송중욱 광주은행총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윤석현 금융감독원장, 임택 광주시 동구청장, 변정섭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용금융센터 개점식을 가졌다.

이곳은 지난 1968년 광주은행 설립 당시 본점으로 활용됐던 곳으로 지역민들의 애환을 보듬고, 지역 내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희망 동반자가 되겠다는 광주은행의 설립 초심을 되새기며 광주은행의 145번째 점포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포용금융센터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저신용자 등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경영컨설팅, 금융교육 등을 실시하는 원스톱 종합상담센터로 운영된다. 지역 내 기초자치단체, 지역신보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금융서비스와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컨설팅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포용금융특별대출(한도 200억원) 상품을 출시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펼치게 된다.

전문 컨설턴트를 포함해 총 7명의 직원이 상주하며 기존 은행 영업시간과 달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도 영업시간을 늘려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출장 금융서비스를 하고 예약상담제로 운영한다.

광주은행은 이날 포용금융센터 개점식과 함께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은 광주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을 특별 출연하고, 보증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총 150억원의 특별보

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그 중 2억원은 포용금융센터에서 추천한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을 위해 별도 운영할 계획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는 30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송중욱 행장은 "지역민과의 동행, 지역 사회와의 상생발전이라는 광주은행의 설립 취지를 충실히 이행할 포용금융센터는 지역밀착경영을 몸소 실천하며 소상공인과 서민의 금융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고,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

로도 광주은행은 광주·전남의 대표은행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수익실현을 넘어서 지역과의 상생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며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지역민에게 잘 하는 은행, 지역민에게 가장 신뢰받고 사랑받는 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윤석현 원장은 "금융은 사회 구성구석을 흐르는 뜨거운 피이고 포용금융은 금융을 통해 작은 기업을 일구고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소망을 실현함으로써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것을 돕는 것"이라며 "포용금융센터가 지역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주는 동반자로서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도 서민·자영업자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서민금융상품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고 유망 중소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이날 오전 광주은행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송중욱 은행행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감사고객 등 50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창립 5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창립기념식에서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광주은행의 51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감사고객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맑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한 우수 부점장 및 직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광주은행의 지난 51년 역사를 돌아보며 지역민들의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임직원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졌다.

송중욱 행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51년 동안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의 광주은행이 있기까지 한결같은 성원과 사랑을 보내준 광주·전남 지역민과 고객에게 거듭 감사함을 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 지역민 최우선이라는 사명 아래 '금융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동적인 은행', '미래 경쟁력 확보로 혁신하는 은행',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는 지역민의 포용적 파트너'로서 100년 은행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은행은 20일 창립 51주년을 맞아 광주시 동구 총장로5가 옛 광주은행 중부지점 자리에 포용금융센터 개점식을 가졌다. 송중욱(가운데) 행장이 윤석현(왼쪽) 금융감독원장, 이용섭 광주시장과 개점식에 앞서 포용금융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125.32 (-27.92) ↓ 금리(국고채 3년) 1.45 (-0.04)
- ↓ 코스닥 649.87 (-12.66) ↑ 환율(USD) 1170.10(+2.50)



## 포스코건설 "광주 최고 명품 아파트 짓겠다"

8000억 풍향 재개발사업 수주  
100m 높이 스카이라이프 건설

8000억원 규모 풍향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포스코건설이 "광주 최고 명품 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20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 북구 풍향동 600-1번지 일원 15만2317㎡(4만6075평)를 재개발하는 것으로, 지하 6층-지상 최고 34층, 28개 동 3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과 부대복리시설(투시도)을 짓는다. 준공은 오는 2025년이 목표다.

이 사업은 8400여억원을 들여 광주시 북구 풍향동 600-1번지 일원 15만2317㎡(4만6075평)를 재개발하는 것으로, 지하 6층-지상 최고 34층, 28개 동 3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과 부대복리시설(투시도)을 짓는다. 준공은 오는 2025년이 목표다. 포스코건설은 풍향구역을 위한 특화설계를 제안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최고급

마감재와 가구당 2.5대의 넉넉한 주차공간, 포스코강판 기술을 활용한 인테리어 마감재 '포스마블' 등이다.

특히, 프랑스 파리의 랜드마크 '라 데팡스'에서 모티브를 얻은 '글로벌 게이트', 무등산 서석대와 능선을 건축적으로 재해석한 아파트 형태와 배치, 100m 높이의 스카이라이프까지 광주의 새로운 100년을 대표할 랜드마크로서의 청사진을 내놨다.

이 밖에 발코니 수위의 조광 귀속, 이주비 지원 등 파격적인 금융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금전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지난 수 개월간 조합원들께 정직하고 진심을 담은 설계안으로 명품 아파트 건설을 약속했다"며 "광주를 대표할 초대형 명품 단지에 서방시도의 옛 영광을 재현할 차별화된 상업시설로 광주 구도심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금호타이어 3분기 영업이익 159억...2분기 연속 흑자

금호타이어는 3분기 159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해 2분기 연속 흑자를 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분기(-380억원)보다 539억원 늘어났으며, 전분기(240억원)보다는 81억원 줄었다.

3분기 매출액은 5900억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6347억원)와 전분기(6170억원)보다 각각 447억원, 270억원 줄었다. 다만, 매출이 감소하는 등 불황형 흑자라는 점이 아쉽다.

3분기 영업이익률은 2.69%를 보였다. 전년 같은 분기는 -5.99%, 전분기는 3.89%였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생산공장 파업에도 거래저 확대와 탄력적 시장 운영으로 판매량이 증가해 내수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해외 물량 감소로 매출이 전분기에 비해 다소 축소됐으나 경영정상화 등 비용 절감으로 영업이익의 흑자가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브랜드 가치가 안정화되고 시장 신뢰가 회복되고 있다"며 "핵심 고객과 제품 집중을 통한 시장 대응과 판매역량을 강화해 영업이익의 흑자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한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50억 출연

### 농어업협력재단과 협약식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중갑)은 20일, 한전아트센터(서울 서초구)에서 대

단)과 '2019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협약식'을 가졌다.

한전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 50억원을 출연하고,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 등 농어촌 지역

의 복지 향상 및 활성화 관련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상생기금은 FTA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촌과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15년 11월,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에서 기금 조성을 합의한 이래, 2017년 1월 'FTA 농어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희천 한전 경영지원부사장은 "한전은 기금 조성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표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수행중이며, 기금이 적기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협력재단의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방치된 묘지 70%(추정)**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 062-412-2800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

###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